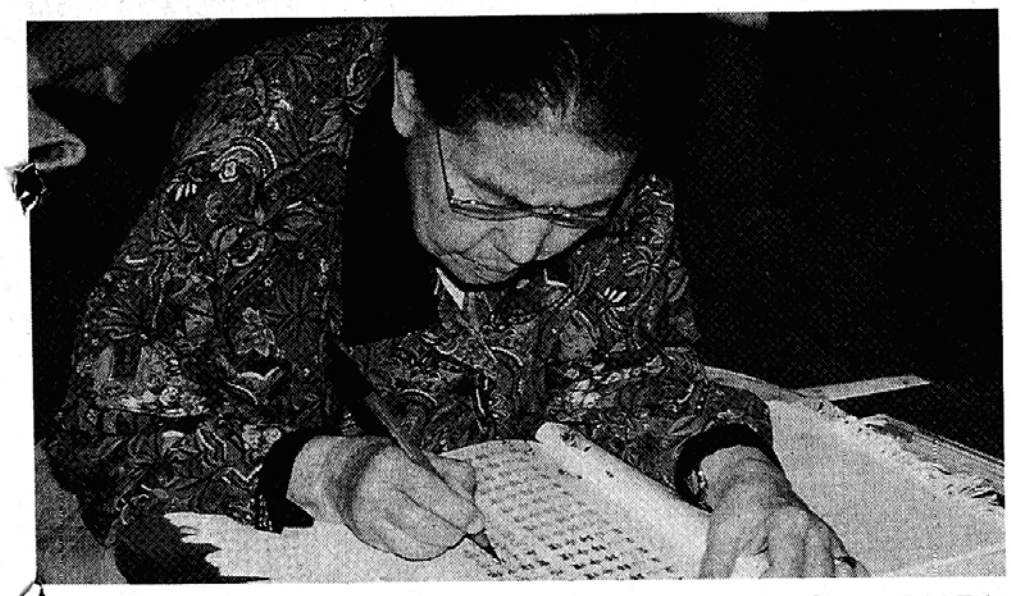
불자다운 수행을 하려거든—46선지식이 들려주는 생활법문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장간1주년 특집 I

누구나 부처될 수 있어요”



마음이 주인 “한 생명이 우주생명의 근원이 되고 우주생명이 곧 한 생명입니다. 마음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고 씨앗입니다. 그 생명이 생성된 뜻을 안다면 우주 시방 법계의 모든 생명의 핵심이 됩니다” (사진은 일념으로 사경하는 보살의 모습.)

간절한 일념으로 닦아야 ‘마음’ 깨쳐

서암 스님 〈조계종 전 종정〉

행복은 바깥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행복은 자기 마음 속에서 찾아야지 바깥 경계에서 찾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 마음 깨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꼬집으면 아픈 줄 알고, 웃기면 웃을 줄 알고, 부르면 대답할 줄 아는 우리의 주인공은 누구도 평등해서 어디서나 성불할 수 있습니다.

석주 스님 〈칠보사 조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우리들로 하여금 본래 한분씩 모시고 있는 이 부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남을 위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하심이라는 공부는 정말 좋은 것이니 참선하고 염불하는 중에도 ‘나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운제 스님 〈태고종 전 총무종정〉

극락세계는 벌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쓰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를 이루어 극락세계를 누리는 것도 나를 내놓고는 따로 없으며 중생을 창조하여 괴로움을 받는 것도 나를 내놓고는 없습니다. 부처의 길을 입으로는 말하나 몸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부처는 되지 못합니다.

도원 스님 〈고운사 조실〉

궁극적으로는 업조차도 없는 게 좋겠지요. 하지만 우선은 선업을 잊지 말고 실천하는 일이 사회인들로서는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참선을 하든 관세음 염불을 하든 자신이 배운 법방(法方)을 일념으로 잘 닦으면 결실을 보는 날이 올 겁니다. 서울 가는 길은 사방으로 나 있지만 서로 통하는 이치와 같지요.

활안 스님 〈천자암 조실〉

한 생명이 우주생명의 근원이 되고 우주생명이 곧 한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마다 길이 활짝 열려져 있고 생산법이 확실합니다. 마음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고 씨앗입니다. 풀 한 포기, 모기 한 마리까지라도 그 생명이 생성된 뜻을 안다면 우주 시방 법계의 모든 생명의 핵심이 되고 전체의 생명은 한 생명의 주인이 되는 이치도 알게 됩니다.

범행 스님 〈팔달선원 주지〉

법이란 여러분들의 잣대로 헤아려서는 알 수 없어요. 오히려 틀과 껍질을 벗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때 흘러가는 구름 속에서, 흩날리는 낙화(落花) 속에서 법의 진면목을 볼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행’이지요. 내가 심어서 길러서 먹어 볼 때의 상황, 그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참선해서 깨치면 바로 수박을 먹는 것처럼 시원해요.

대정 스님 〈범어사 선원장〉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곧 부처(是心卽佛)입니다.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현재 우리가 앉고, 눕고, 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즉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가 될 때 그것이 깨침이고 부처고 도고 선입니다.

고송 스님 〈파계사 조실〉

나(我)라는 생각과 욕심을 남김 없이 버린다면 누구나 곧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확신과 그러한 서원을 발할 때 정각(正覺)이 멀지 않습니다. 절을 하는 행위는 나를 꺾으라는 것입니다. 절은 하심(下心)을 내기 위한 공부가 되는데, 자기를 꺾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몸짓이 됩니다.

월운 스님 〈동국대 역경원장〉

참된 불교신자는 상락아정의 소극적 경지에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이나 사회의 구원과 봉사를 위하여 힘차게 활동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집착하기 쉬운 모든 요소들을 초월하여 그것에 걸리질 말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말며 그러면서 겁냄도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능가 스님 〈범어사 내원암 회주〉

내몸 하나가 질서를 어기면 이 사회 전체의 질서가 어긋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콩가마니 속의 콩 하나가 썩으면 가마니 전체의 콩이 썩는 이치와 같지요.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와 ‘내 집’만을 생각해서 살아서는 안됩니다. 모든 악이 ‘천지가 한마음 한몸’임을 모르는 사실에서 일어남을 인식해야 합니다.

> 백번 듣는것 보다 한번 행하는 것이 더 낫고, 백번 행하는 것보다 한번 깨닫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송월 스님 〈용문사 조실〉

자기가 자기자신을 모르는데 어디가서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생활을 떠나서 불법을 따로이 구하지 말고, 불법을 잃고 따로이 그 어떤 것이 있다고 결코 믿지도 말고, 오만하지도 마십시오.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곧 불법입니다. 모든 근심과 공포와 번뇌는 거짓 나를 고정불변한 것으로 착각해서 생겨나는 것이니 항상 나를 개발하려고 정진하세요.

지종 스님 〈불갑사 조실〉

형체가 없는 그 마음 자리가 이 우주 법계를 삼켰다가 뱉었다 하는 겁니다. 마음이 형체가 있다면 이 우주를 못 삼켜요. 없기 때문에 이 우주를 한숨에 들이켰다 뱉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 지은 업보와 죄를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진치 삼독을 버리라 하신 거예요.

혜정 스님 〈청계사 조실〉

정진할 때는 쓸모없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너무나 쓸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로서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 아니면 안된다는 사견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정진할 때는 모든 것을 놓고 다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비워서 하나의 의심덩어리가 우주에 꽉차고 견고한 신심을 발휘해야 뜻한 마음자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운 스님 〈대만불광사 창건주〉

자유와 부자유는 오직 자신의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경계를 따라 바뀌면 부자유요, 마음이 능히 경계를 바꿀 수 있으면 대자유를 얻는 것이니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틱냑한 스님 〈베트남 선사〉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는 설거지만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자신이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수행은 매 순간을 살아있는 것입니다.

달라이라마 〈티벳 승왕〉

처음에 작은 깨달음의 신호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벌리하여 깨달음을 생각함으로써 수행을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진전을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진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를 하지 않고 수행하는 것이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번 생을 포기하고 수행을 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쏘비타 스님 〈스리랑카 씨암종 부종정〉

불법에서 삼독으로 표현되는 마음으로부터의 폭력, 실제 개인 생활에서 볼 수 있는 폭력, 사회 집단이 자신들만의 이익의 추구를 위한 폭력 등 우리는 많은 폭력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폭력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자나카 스님 〈미얀마 선사〉

위빠사나(Vipasana)의 목적은 정신적·육체적 제 현상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고통의 소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노여움이나 슬픔 또는 행복감 같은 감정도 하나의 명상대상이 될 수 있고 통증이나 가려움 또는 마비증세등의 감각 또한 위빠사나 명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로 맞추려 노력할 때 행복의 꽃 피네

아잔 수메도 스님 〈영국〉

좌선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몸 속에 고통스런 느낌이 일어나거든, 자신이 얼마나 참을성 없게 그 고통을 면해 보려 버둥대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십시요.

사사나 소바나 스님 〈태국 승왕〉

궁극적인 자유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강한 열정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며 탐욕, 증오, 망상의 세가지 망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 생각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얻은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범룡 스님 〈봉암사 조실〉

저만 부지런하면 어느 시대나 공부는 할 수 있어요.

옛 스님은 법문 하나 들으려고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밥도 굶고 찬 데에서 자면서까지 가서 신심(信心)으로 물으니 공부가 되었지요. 신심하나 갖고 나니 딴 생각이 날 턱도 없지요.

믿음이 없으니 의심이 없을 것이고, 의심이 없으니 깨달음이 있겠소. 그러니 신심을 크게 내야 해요.

성찬 스님 〈도성암 조실〉

자기자신도 모르는 자를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형상만 하고 있을 뿐 참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야 사람노릇을 하게 됩니다. 화두도 내가들고, 망상도 내가 내고, 잠도 내가 잡니다. 거짓된 나 자신과의 모든 싸움에서 이겨 참 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유 스님 〈원효암 주지〉

자기 스스로 내면의 움직임과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느낄수 있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5분동안이라도 앉아보면 느낀대로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한 생각을 놓아 버리면, 좋은 쪽으로 돌리고 돌리고 하다보면 나쁜 습성이 저절로 일어났듯이 좋은 습성도 저절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비룡 스님 〈월정사 조실〉

계율을 지켜야 선정에 드는 것이지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용맹정진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린 가운데서 도가 발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부른 상태에서 무슨 도를 찾고 용맹정진할 수 있겠습니까. 잘먹고 편안한 가운데서 공부하겠다는 것은 다 헛소리고 망상입니다.

천운 스님 〈대흥사 조실〉

우리 인간은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남에게는 절대 허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건 하나를 놓고 봐도 내것이라고 해봐야 저녁에 도둑이 와서 가져가 버리면 내것이 아닙니다. 이세상에 내것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공동체로 쓰는 공유물인 것입니다.

도서출판 명상에서는 자신을 바르게 보는 책들을 펴내오고 있습니다
TEL 739-2520 FAX 738-7709 명상

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지요

장 군 죽 비

누가 부처를 죽이는가?

한 권의 책은 한 시대를 이끌고
그 시대의 사상을 다듬어 갑니다.

한번 보고 버리는 책이 있는가 하면 두고두고 곁에 두고 싶은 책도 있습니다.



신국판 상·하권 각권 9,000원

선사(禪師)가 쓴 우리 시대의 불교입문 지침서

이 책은 3년 전에 본문 100쪽 내외로 쓰여졌으나 여기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를 달아 이번에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성철 큰스님이 가신 뒤 공허한 한국불교에
『장군죽비』를 들고 휴암스님이 그 뜻을 이어갑니다.

지난 시절 서울대 법대 학생운동권의 주역이었던 성경섭(成慶燮)이 30여 년 침묵 후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선사(禪師)로서 사자후를 토하였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서산대사 휴정의 『선가귀감』에 버금가는 책이라고 평가합니다.

서산대사 휴정의 『선가귀감』에 버금가는 불교입문 지침서 『장군죽비』는 팔만대장경에서 진수만을 가려뽑아 이 시대의 목소리로 새롭게 다듬은 책입니다.

* 어떻게 하면 불교를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은 이 책에서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선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선물은 받는 이의 기쁨도 있지만 주는 이의 인품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 아직까지 이 책을 읽지 않은 스님들에게 이 책을 권합시다.



선승(禪僧)으로서 불교의 이론에도 일가를 이룬 휴암스님

이제 『장군죽비』는 스님들의 손을 떠나 일반신도들의 애독서가 되었습니다.